

박장범 제27대 KBS 사장 취임 “국민만 바라보며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박장범 제27대 KBS 사장이 12월 10일 공식 취임했다.

박장범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BS의 주인인 국민만 바라보고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으로서 ‘신뢰’와 ‘공정’, ‘품격’,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와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조직 운영과 관련해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정파적·편향적 인사와 보복성 조치를 배제하고, 일 중심의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신료 환경 변화와 국회의 수신료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장범 사장은 1994년 KBS 공채 20기로 입사해 〈KBS 뉴스 9〉, 〈뉴스광장〉, 〈심야토론〉 앵커와 런던 특파원, 시사제작2부장, 사회2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 사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 9일까지이다.



KBS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KBS 가족 여러분

KBS 27대 사장으로 취임한 박장범입니다. 국정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입니다.

저는 어떠한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KBS의 주인인 시청자만 바라보면서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먼저 중심을 잡겠습니다. 신뢰와 공정,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이라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조직을 망가뜨린 잘못된 인사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오랜 시간, KBS 내부에는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인사, 보복성 조치, 편 가르기와 줄서기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더 나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정치적 변화기에 반복되던 집단주의적 충돌과 갈등을 극복하고, 그로 인해 생겨난 극단적 개인주의와 냉소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한류를 선도할 수준 높은 콘텐츠, 품성한 글로벌 뉴스,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송 서비스,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한 공적 책무. 이 모든 것이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가능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변화된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관련 입법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KBS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겠습니다.

새로운 KBS로 변모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OTT는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광고와 콘텐츠 시장 모두 향후 전망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여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넓혀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통한 제작 혁신도 시작하겠습니다. 보유 자산 개발과 새로운 수익사업 창출 등 사업 다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2024년 12월 20일

제27대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장범

신임 집행기관 인사 단행... 새 진용 갖춰

제27대 박장범 사장이 12월 10일 사장 취임 후 신임 집행기관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직제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처음으로 ‘1실 4본부 6센터’의 직제에 맞춰 임원진이 임명됐다.

신임 집행기관 소개



김우성
부사장

1965년생
(前) KBS America 등기이사(CFO)
(前) 방송본부 광고국장
(前) 인력관리실장



민필규
전략기획실장

1969년생
(前) 제작본부 TV프로덕션2 시사데스크부장
(前)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라디오제작부장
(前) 이사회사무국장



최성민
콘텐츠전략본부장

1969년생
(前) 제작본부 TV프로덕션5담당
(前) 제작1본부 시사교양1국 CP
(前) 제작1본부 시사교양1국장



이재환
보도시사본부장

1967년생
(前) 미주지국 상파울루특파원
(前)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네트워크부장
(前)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제부장



김민중
방송인프라본부장

1967년생
(前) 기술본부 기술관리국 기술운영부장
(前) 제주방송총국 기술국장
(前) (주)KBS미디어텍 사장



정국진
경영본부장

1965년생
(前) 인력관리실 인사운영부장
(前) 방송본부 광고국 광고제작부장
(前) 안동방송국장



김현기
멀티플랫폼센터장

1968년생
(前) 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국 매체전략부 팀장
(前) 제작본부 TV제작기획부 팀장
(前) 제작2본부 콘텐츠사업국장



김영조
드라마센터장

1973년생
(前) 제작2본부 드라마센터 팀장
(前) 편성본부 멀티플랫폼전략부
(前) 제작2본부 드라마센터 CP



한경천
예능센터장

1969년생
(前) 편성본부 콘텐츠창의센터 CP
(前) TV본부 예능국 CP
(前) (주)KBS N 편성제작본부장



이유진
스포츠센터장

1970년생
(前) 보도본부 스포츠국 스포츠사업부 팀장
(前) 보도본부 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 팀장
(前) 보도본부 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장



이재정
교양다큐센터장

1968년생
(前) TV본부 기획제작국 팀장
(前) 뉴욕 PD특파원
(前)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장



김병진
라디오센터장

1966년생
(前) 라디오센터 라디오1국 1라디오부장
(前) 라디오센터 라디오2국 2FM부장
(前) 방송본부 라디오사업국

서기석 KBS 이사장, ABU 워크숍서 ‘ESG 경영성과’ 소개



서기석 KBS 이사장이 지난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미디어 아카데미 워크숍에 참석해 ‘위기의 방송사, ESG가 살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서 이사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사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작 환경 구축과 시청자 중심의 방송 실현,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 이사장은 특히 KBS의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과 ‘재난 특보 운영’, ‘재무 현황 공개’ 등 ESG 경영성과를 자세히 소개하며 방송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ABU 미디어 아카데미측은 KBS의 ESG 경영 전략은 방송 산업 내에서 효과적인 경영과 상호 발전의 모범 사례이며 ABU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AI 신기술을 한눈에... ‘2024 AX DAY’ 개최

KBS는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미디어 제작 기술의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AI)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2024 AX(AI Transformation) DAY’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KBS가 개발해 실제 미디어 제작에 활용 중인 ‘생성형 AI 뉴스 그래픽’과 ‘AI 스포츠 중계 화면’, ‘AI 자막 동기화’ 등의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등 선도적인 외부 전문기관들이 개발한 ‘K-POP 안무 점수 측정기’, ‘AI 작곡’, ‘AI 웹툰 채색’ 같은 창의적인 AI 솔루션도 전시됐다. 이어 미디어 제작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크에서는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전망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에 앞서, AI 기술을 활용한 직캠 제작 솔루션 ‘버티고’를 개발해 <뮤직뱅크>, <불후의 명곡> 등에 적용 중인 KBS는 한발 더 나아간 AI 실시간 영



상처리 서비스 ‘버티고 Live’로 지난달 20일 전파방송기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굿바이 2024... KBS와 함께 풍성한 연말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장르별 시상식과 성탄절 공연, 신년 타종 행사에 이르기까지 연말이면 빠질 수 없는 다채로운 소식에 어김없이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S가 알차게 준비한 2024년 연말 프로그램을 정리했다.

〈2024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

K-POP의 새 역사를 쓴 별들이 한 자리에! 1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4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이 2TV를 통해 생방송된다. 가수 지코와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그리고 KBS 수목드라마 〈완벽한 가족〉에서 열연을 펼쳤던 배우 김영대가 MC로 출격한다. 시공간을 넘어 음악으로 끝없이 연결된다는 ‘인피니티’를 주제로 삼은 무대에는 가수 엔하이픈과 에스파, 아이브, 보이넥스트도어 등 〈뮤직뱅크〉에서 1위를 수성한 아이돌 그룹을 비롯해 1990년대 데뷔했던 ‘1세대 아이돌’ 지누션과 베이비복스, 구준엽 등이 출연한다.

〈2024 KBS 연예대상〉

또 하나의 예능 무대로 자리매김한 〈2024 KBS 연예대상〉이 12월 21일 토요일 밤 9시 20분부터 180분간 2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KBS의 간판 예능인 〈불후의 명곡〉과 〈더 시즌즈〉, 〈1박 2일〉에 각각 출연 중인 가수 이찬원, 이영지, 이준이 MC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특히 KBS 50기 아나운서 정은혜, 이예원과 〈개그콘서트〉에서 활약 중인 KBS 33기 공채 개그우먼 나현영, 채효령이 뭉쳐 ‘게스파’라는 이름으로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이에 더해,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트로트 3인방’ 이찬원, 장민호, 박서진의 합동 무대도 마련된다.

〈2024 KBS 연기대상〉·〈2025 카운트다운 쇼 LIGHT NOW〉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2024 KBS 연기대상〉은 12월 31일 저녁 7시부

터 10시 50분까지 2TV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원로배우들의 투혼이 빛났던 수목드라마 〈개소리〉, 코미디와 미스터리를 오가며 주말드라마를 다채롭게 변주했다는 평을 얻은 〈다리미 패밀리〉 등 올 한 해 KBS 드라마를 이끈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KBS의 2025년 기대작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안재욱·엄지원이 시상자로 참석해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어 〈2024 KBS 연기대상〉 방송 종료 직후인 밤 11시부터 〈2025 카운트다운 쇼 LIGHT NOW〉가 생방송으로 특별 편성된다. 올해는 서울 중구의 초대형 전광판인 명동스퀘어 신세계 본점 LED로 카메라를 옮겨 진행되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비롯해 가수 박진영과 2AM, 스탬라장 등의 공연과 볼거리가 화려하게 이어진다.

〈조수미 크리스마스 콘서트〉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KBS를 통해 특별한 음악 선물을 전한다. 12월 25일 저녁 7시 15분부터 75분간 KBS 1TV에서 방송되는 〈조수미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실버벨’, ‘산타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 등의 캐럴을 비롯해 조수미의 싱글 앨범 ‘러브 러브’와 그녀가 직접 노랫말을 쓴 ‘드림 오브 유’ 등이 공연된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우리나라의 첫 창작동요인 ‘반달’ 탄생 100주년과 조수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출연했던 국내 유일의 어린이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KBS 〈누가누가 잘하나〉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젊은 세대간 문화 교류 〈ROUND in Laos〉성황리 개최



한국과 아세안 MZ세대간의 교류를 목표로 기획된 한·아세안 뮤직페스티벌 〈ROUND in Laos〉가 지난 11월 2일과 3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KBS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특히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며 아세안 사무국 주요 인사들과 라오스 주재 각국 대사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갯세븐의 뱀뱀이 MC를 맡고 한국과 아세안의 13개 팀이 무대를 펼쳐 4,000여 명의 관객이 열광한 페스티벌 실황은 11월 27일 KBS 2TV에 이어 12월 13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고 KBS WORLD 채널을 통해 세계 150여 개국으로도 송출됐다.

12월의 주목할 프로그램

한겨울의 손 세차 토크
〈세차JANG〉



방송인 장성규와 가수 장민호,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두 MC가 세차장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토크쇼를 선보인다. 자동차에 얹힌 이야기를 큰 주제 삼아, 요즘 가장 주목받는 스타부터 차와 관련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게스트의 차량 속 물건들을 통해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진솔한 대화를 풀어간다. 슈퍼카든 트럭이든 자전거든 차종에는 제한이 없는데, 게스트가 타던 차량을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로 대화가 전개된다. ‘세차’라는 새롭고 시원한 콘셉트를 통해 유쾌한 소통과 신선한 재미를 노린다.

▶ 매주 월요일 21시 45분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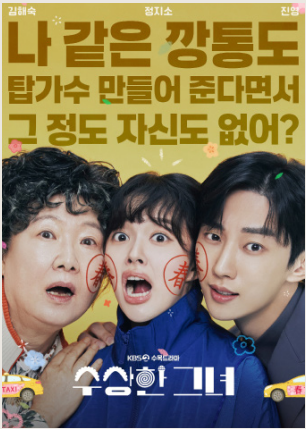
셀럽들의 은밀한 생로병사
〈셀럽병사의 비밀〉



눈에 번쩍 띄운 의학 콘텐츠를 찾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셀럽병사의 비밀〉은 역사 속 인물과 현대 ‘셀럽’들의 죽음을 통해 질병과 의학의 내밀한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방송인 장도연과 가수 이찬원, (여자)아이들 미연과 의사 겸 웹소설 작가인 이낙준이 진행을 이끌어 가며, 화차별로 다양한 의학·역사 전문가들이 출연해 전문성을 더한다. 12월 10일 첫 방송부터 ‘의학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는 호평과 함께 시청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 매주 화요일 20시 30분 **KBS**

9백만 관객의 감동으로 재탄생한
드라마 〈수상한 그녀〉



영화 〈수상한 그녀〉가 국내 866만 관객과 해외 8개국에서의 리메이크라는 성공을 뛰어넘어 드라마로까지 재탄생했다. 주인공 오말순(73)은 젊어서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지만 가족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오던 중 기적적으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펼치게 된다. 드라마 〈수상한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그녀가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화보다 한층 깊어진 세대 간 공감과 화해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요즘 가족의 이야기를 공감 가득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과 감동을 전한다.

▶ 매주 수·목요일 21시 50분 **KBS**

복수와 성장, 치유의 휴먼 멜로 복수극
〈신데렐라 게임〉



2TV 새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이 복잡하게 얽힌 인물들의 서사와 흥미진진한 전개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12월 2일 첫 방송 이후 ‘출생의 비밀’이라는 전형적인 클리셰를 반복하는데서 벗어나 입양과 위탁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통해 아동학대,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특히 일부 입양아들이 겪는 현실적 고통을 다뤄 위탁 및 보육 아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영희, 지수원, 김혜옥, 최종환 등 중견 연기자들의 안정적인 연기와 함께 이현경 PD의 생동감 넘치는 연출과 오상희 작가의 중독적인 필력도 호평받고 있다.

▶ 매주 월~금요일 19시 50분 **KBS**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나눔은 행복입니다’ 특별 방송

KBS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나눔은 행복입니다’〉가 12월 18일 1TV에서 특별 방송됐다. 지난 12일 치러진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10분에 약 두 시간씩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9개 KBS 지역총국이 참여했다. KBS 본사 시청자 광장에 마련된 성금 접수처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안나의 집’ 대표인 김하중 신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성금을 기탁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12월과 이듬해 1월 진행하는 이웃 돕기 행사로, 기부금은 고립 청년과 기후변화에 따른 빈곤문제 등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사회안전망·지역사회 돌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